



[기획인터뷰]

INTERVIEW

강 동 석

건설교통부 장관

「21세기 경제성장의 신 동력원!!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지원책 마련」

참여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지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산학연관 물류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류업계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글로벌 기업화 되어 가고 있다.

정부부처 중 특히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류분야의 전문가로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실시, 한중 물류협력회의 창설 등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인물 중의 한사람이다.

건설교통부 수장으로서의 지난 한해 그에 대한 평가와 2005년 새해 계획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 먼저, 한국물류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물류인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강 동석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전국의 물류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물류인들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 물류산업이 21세기 경제성장의 신 동력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물류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써 물류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한해 동안 펼쳐온 물류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올해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물류인프라 확충과 함께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 해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공항 개발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류산업 선진화 등의 물류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던 값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2단계 확장공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류거점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외에 영남, 호남 및 중부권 건설도 박차를 가하는 등 물류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전문기업을 정부가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하여 육성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인천공항 2단계 확장, 내륙화물기지 건설 등 물류인프라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통한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BA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등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각종시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가 주요정책으로 추진중인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물류업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흔히들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문제점으로 제조업이 물류업을 병행하는 자가물류 위주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들고 있습니다. 물류전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시장규모가 협소하다보니 물류전문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화주기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재하다보니 다시 자가물류에 집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류산업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선순환의 연결을 위해 지난해에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인증기준안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수송, 보관 등 부분서비스 제공에 머무르던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물류전문기업으로 탈바꿈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제3자 물류전문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은 생산과 판매에 주력하고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함으로써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고효율 물류체계가 구축되어 국가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한·중·일간의 물류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5대 컨테이너 항구와 5대 항공화물처리 공항중 4개가 밀집된 아시아지역은 세계의 물류기지 역할을 다하고 있어 아시아경제권을 선도하는 한·중·일 동북아 3개국간의 물류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 3국간의 교통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물류표준화 등의 현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만, 물류분야의 성장과 경제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별도의 국제물류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물류시장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물류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 물류협력회의를 창설하여 금년내 1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는 양국간 물류현안인 중국의 물류표준화를 촉구하고, 국내물류기업의 중국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적정안건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중 물류협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토대로 한·중·일 동북아 3개국간의 물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대륙형 물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반도 횡단철도망의 구축 등 남북간 물류합리화를 위한 기일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물류업계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대륙형 물류체제로의 전환은 대륙에 접한 반도라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물류강국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 등의 대륙철도망 구축에 대비하여 한반도 횡단철도망 복원을 위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03년에 완료하고, 현재 동해선 연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대륙횡단철도망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남·북·러 3국 철도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남북간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착실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 제2차 남·북·러 철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장래의 대륙횡단철도망 건설에 대비 남북간 긴밀한 교류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물류업계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송주산업,

복합화물운송 주선업 등 주선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물류업체의 영세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영세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략적 제휴를 맺은 중소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영세물류업체의 대형화·종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물류업체들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소물류업체에게도 현상태의 만족과 시장유지보다는 대형업체와의 협력구축, M&A를 통한 규모 및 시장확대,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 기타 물류업체 또는 물류관련 기업에 대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지요.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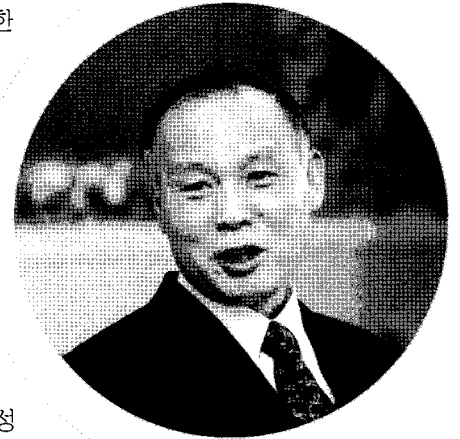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정부는 물류산업 선진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물류업체도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

는 선진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방안과 자원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무쯤 특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산업 육성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류**



**<강동석 장관 프로필>**

**■ 학력**

- 1957. 02 - 전주고졸
- 1961. 08 - 경희대 법률학과 중퇴
- 1984. 12 - 연세대 행정대학원(고위정책 과정) 수료

**■ 주요경력**

- 1965. 09 - 제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74. 11 ~ 1976. 03 - 부산항만청 해무과장
- 1976. 03 ~ 1977. 06 - 항만청 항무과장
- 1977. 07 ~ 1979. 03 - 항만청 총무과장
- 1979. 03 ~ 1980. 12 -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 1980. 12 ~ 1981. 06 - 관광국장
- 1981. 06 ~ 1981. 11 - 도시교통국장
- 1981. 11 ~ 1982. 02 - 육운국장
- 1982. 02 ~ 1987. 01 - 민정당 교통·체신 전문위원
- 1987. 01 ~ 1992. 04 - 교통부 기획관리실장
- 1992. 04 ~ 1993. 03 - 해운항만청장
- 1993. 03 ~ 1994. 09 -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
- 1994. 09 ~ 1999. 01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 1999. 02 ~ 2002. 03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2002. 05 ~ 2003. 12 - 한국전력공사 사장
- 2003. 12 ~ 현재 - 건설교통부 장관